



## 창간사 웹진 《트랜스라틴 TransLatin》 창간에 부쳐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SNUILAS)가 격월간 웹진 《트랜스라틴》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1989년 ‘스페인중남미연구소’로 출범한 이래 국내의 스페인어권 및 포르투갈어권 지역연구에서 중요한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간의 연구수행 성과와 능력,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두루 인정받아 ‘2007년 인문한국사업 유망연구소’에 선정된 우리 연구소는 ‘라틴아메리카연구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국내의 라틴아메리카 연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현 단계에서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를 대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활발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런 고민의 결과로 오늘 《트랜스라틴》이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웹진이 지향하는 목표는 제

호의 트랜스(Trans)라는 접두어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 ● 지역과 세계 가로지르기

첫째, 연구대상 지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고립된 독자 영역으로 간주하고 접근하기보다는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관점에서 이 지역과 세계 사이에 형성된 관계에 주목합니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는 세계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세계는 라틴아메리카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이 지역의 창조성과 다양성과 역동성을 포착하려고 합니다.

### ● 특유성과 보편성 가로지르기

둘째, 지역연구의 1차적 목표는 특수성과 고유성에 대한 규명일 것이나, 우리 연구소는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특유성에 함몰되지 않는 보편성을 지향합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다양한 삶의 형식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 더 나아가 인간다운 삶의 형식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인문학 정신이

살아있는 소통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 ● 전문성과 대중성 가로지르기

셋째, 전문성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 갇혀 있던 기존 지역연구의 틀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우리 웹진은 그간의 지역연구 성과들이 지나치게 전문적인 언어로 씌어져 대중과 유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전문성과 대중성의 균형 있는 조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와 담론의 장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 분과학문 가로지르기

넷째, 웹진 《트랜스라틴》은 다양한 담론이 어우러져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어가는 원형질의 공간을 지향합니다. 지나치게 자신이 속한 학문의 언어로만 수행되어 배타적인 성격이 강했던 지역연구의 분과 학문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론을 공유하고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 이해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 ● 소통의 장 가로지르기

마지막으로, 특정 개인이나 연구 집단이 독점하는 공간이 아닌 열려있는 소통의 장이 되 고자 합니다. 그간 국내 지역연구는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과 성과를 효율적으로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웹진 《트랜스라틴》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상호 소통하는 공론의 장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웹진 《트랜스라틴》은 국내외의 라틴아메리카 관련자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국내 지역연구 분야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의미 있는 작업인 만큼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3월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장 김창민

---